

강진군, 손모내기로 전통농업 명맥 살린다

병영면 박동리 일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권역 손 모내기 개최 지역 농요 '모심기 노래' 함께 불러 문화 살리는 뜻깊은 자리

강진군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협의체가 23일, 병영면 박동리 일원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손모내기 재연행사를 개최하고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체 회원과 관·민 관계자들이 참여해, 2시간 동안 약 300m2의 논에 못줄을 피고 모를 심었다. 또한, 모내기를 하며 지역 농요인 '모심기 노래'도 함께 불러 사라져가는 전통농업에 대한 명맥을 잇고 문화를 살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강진군 농업유산 주민협의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6호로 선정된 연방죽 생태순환수로 농업시스템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설립된 주민자치기구로, 겨울에는 병영·작천면의 연방

죽에서 진행되는 고유의 '가래치기 행사'도 주최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협의체 송용백 회장은 "주민협의체는 앞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해 손모내기와 벼수확을 함께하는 농촌체험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겨울철 인근 연방죽에서 실시하는 가래치기 행사에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수로는 전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한들 평야의 부족한 농수로 확보를 위해 병영·작천면 농경지 곳곳에 연방죽을 축조해, 물을 저장·보관하고 재사용해 농업환경을 극복한 전통관개 방식이다.

농업용수로 사용한 물은 다시 민가의 생활



용수로 사용하고 전라병영성의 군사용 해자로도 흘러보였으며, 연방죽에서 키운 연과 물고기로 생계를 이었다.

연방죽 생태순환수로는 한정적인 수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물 나눔과 순환의 지혜'를 인정받아, 2021년,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세계관개시설물로 지정된 인류의 유산인 강진의 연방죽 생태순환수로는 단순한 농사방식을 떠나, 유한한 물을 나누고 순환시킨 조상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손 모내기와 가래치기 등을 통해, 고유한 강진의 전통 유산을 면면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中 이우시 '교류협력 강화'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해남군이 세계 최대 도매시장을 가진 중국 이우시와의 교류협력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3일에는 명현관 군수와 예광루이 이우시장, 왕웨이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제무역, 농업, 관광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 양 지자체의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협약식에서는 예광루이 시장이 농업 유통 교류 강화와 지자체 및 기업, 단체의 교류 확대, 청년들의 이우시 상업활동 지원 등을 약속에서 제안하였고, 명현관 군수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며서 조만간 해남방문을 제안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명 군수는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 지자체의 의지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상 상호방문을 하지 못했던 바 이번 방문 일정을 통해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세계적 소비재 생산도시이자 무역도시인 이우시와 고급 농산물,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해남군은 미래발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경제적 파트너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광루이 이우시장은 "멀리 해남에서 이우시를 찾아주시는 방문단 일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농산물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기대하며, 해남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한다"고 의지를 전했다.

해남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해남 유기농쌀의 수출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확보하는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 방문 기간 중 농업유통회사 등을 방문, 유기농 쌀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실무협의의 진행해 조만간 초도물량을 수출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소상품(잡화) 유통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우시는 중국내에서도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무역도시로, 유기농쌀 등 프리미엄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하루 쌀소비량 400톤, 연간 15만톤 가량이지만 상대적으로 농업기반이 취약해 쌀을 비롯한 농식품의 대부분을 타지역에서 구매해 소비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의 작은 영화관인 '진도아리랑 시네마'가 오는 26일 재개관한다. 지난 2017년 7월 개관 이후 문화시설 기반

이 갖춰지지 않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은 영화관은 군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주는 일등공신을 했다.

진도군, '진도아리랑 시네마' 내일 재개관

안정적인 문화소통공간 위해 진도군 직접 운영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3년동안 관람객이 크게 줄어들고, 대형 영화관 대비 저렴한 관람료로 불안정한 수익구조로 위탁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돼 지난 4월 1일부터 임시 휴관이 결정됐다.

군에서 직접 운영을 결정하고 인근 도시로 나가 비싼 관람료를 부담해 문화생활을 하던 군민들의 불편함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관과 동시에 상영될 영화는 ▲분노의 질주(라이드 오어 다이) ▲드립 ▲인어공주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범죄도시3(5월 31일) ▲포켓몬스터(6월 1일) 등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을 준비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아리랑 시네마는 군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며 "군민들을 위해 더 많은 감동과 추억을 선물하고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일반 성인은 1천원 할인된 6천원으로 영화관람이 가능하다. 문의는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061-540-3058).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12개 읍면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학교' 운영

주민 참여 예산 사업 발굴, 제안서 작성 방법 등 교육

완도군은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주민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여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12개 읍면을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학교'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주민 참여 예산학교'는 군민들이 특정 장소를 방문해 교육을 들었으나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를 뒷받침하고자 군은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교육은 지난 4월 26일 보길면을 시작으로 5

월에는 금일읍, 약산면, 완도읍, 노화읍, 군외면의 주민자치회, 이장단,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외 읍면은 6월에 순회할 예정이다.

군은 향후 청소년, 청년, 여성, 다문화, 장애인 등 대상별로도 교육을 진행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은 ▲주민 참여 예산제 이해 ▲주민 참여 예산 현황 ▲주민 참여 예산 우수 사례



▲사업 발굴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등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면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안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금일읍 응급환자를 위한 점안시설 설치, 금당면 단단월 천년의 숲 조성 등 20건의 사업에 12억 원을 주민 참여 예산에 반영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